

美, 매출 69% 차지… SK하이닉스, 국제경영 전문가 영입

서진우·유정준·이형희 부회장 합류
기술 인재 중심서 국제경영 보강

지난해 ‘매크로 리서치 센터’부터
美 ‘글로벌 인프라’ 등 조직 신설

SK하이닉스의 인재 영입의 무게추가 ‘기술통’에서 국제경영 전문가로 넘어지고 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가운데 현지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복잡해진 글로벌 경영 환경에 대응할 인재를 필요해진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진우·유정준·이형희 SK그룹 부회장이 SK하이닉스에 합류했다. 서 부회장은 중국 사업을, 유 부회장은 미주 사업을 이끌어왔으며 이 부회장은 그룹 내 대외협력과 해외 사업을 맡아왔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제금융 전문가인 정여진 전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총괄과장을 커뮤니케이션총괄 산하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정 부사장은 기획재정부 외환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

도과장과 외화자금과장 등을 거쳤으며 SK하이닉스에서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SK하이닉스는 기술 인재를 중심으로 임원을 발탁해왔다. 지난해 말 단행한 2026년 정기인사에서도 신규 임원 37명 가운데 약 70%를 주요 사업·기술 분야에서 발탁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경영 역량까지 보강하고 있다.

◆조직부터 달라졌다…거시경제·지정학까지 분석

변화는 조직에서도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매크로 리서치 센터(Macro Research Center·MRC)를 신설했다. MRC는 글로벌 거시경제와 산업·기업, 지정학 이슈를 분석해 AI반도체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는 ‘글로벌 AI 리서치센터’를 만들었고 미국 인디애나 생

산기지 구축을 전담할 ‘글로벌 인프라’ 조직도 신설했다. 기술 개발과 생산에 집중했던 조직에 글로벌 시장과 해외 생산에 대응하는 기능을 보강한 것이다.

◆매출 68.9% 미국…판매 넘어 투자·생산으로

배경에는 커진 미국 사업 비중이 있다.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객 대상 매출은 66조8851억원으로 전체 매출 97조1467억원의 68.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미국 사업은 제품 판매를 넘어 생산과 투자로 넓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파엣에서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HBM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착공식을 열었다. 2029년 하반기 차세대 HBM 양산이 목표다.

미국 내 메모리 생산도 검토 중이다. 로이터는 지난 16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활용하거나 인텔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

이닉스는 미국에 AI 전문 투자 조직을 설립하고 최대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8일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브랜드 ‘SK하이닉스 벤처스’를 출범시켰다.

특히 같은 날 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동부에 낸드 생산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지역과 투자 규모,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사업이 제품 판매에서 현지 투자와 생산으로 넓어진 점도 SK하이닉스가 국제경영 인재를 보강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에 6조428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동기보다 98.4% 늘어난 규모다.

곽노정 SK하이닉스 CEO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 당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오가노이드, 연구실 넘어 실제 신약개발·치료 전환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ODC26’
글로벌 협력·규제 혁신 지원 약속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최한 ‘ODC26 - 연구를 넘어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는 전환’ 오가노이드 개발자 콘퍼런스(Organoid Developer Conference 2026)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7~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열린 8번째 ODC2026은 오가노이드 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실제 신약 개발과 치료 현장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연구자와 기업·규제 전문가, 환자와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큰 관심을 이끌었다.

행사 첫날인 17일에는 ▲오가노이드 표준화와 품질관리 ▲재생의료와 임상 적용 ▲첨단대체시험법(NAMs)의 검증과 규제 수용 ▲AI·장기칩 기반 차세대 연구



지난 17~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텍플렉스에서 열린 8번째 ODC2026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플랫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세션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오상훈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정에 국회의원, 박정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회장, 엘리자베스 빈칸(Elizabeth Vincan) 멜버른 의대 교수가 축사에 나서 ODC26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했다. 주요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이

국가 바이오 안보 및 차세대 신약개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협력과 규제 혁신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세계 최초로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유래 세포 이식 임상연구를 이끈 다카하시 마사요(Masayo Takahashi) 비전케어 대표의 기조강연은 오가노이드의 품질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전달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가노이드 기술이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주제로 한 세션들이 이어졌다. 닉 바커 싱가포르 A*STAR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연구 디렉터가 장 줄기세포와 위장관암의 기원 연구를 공개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연구단장이 유전체 교정과 성체 오가노이드를 결합한 바이오뱅크·신약스 크리닝 연구를, 레나 스미르노바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발달신경독성 평가와 규제 적격화 연구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망막색소변성증(RP)을 중심으로 환자와 의료진, 연구개발자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세션 ‘치료를 만드는 환자들’이 열렸다. 엔테테이너 이동우, 최정남 싱클레타바이오텍 대표(한국실명퇴치운동

본부 회장) 이준원 강남세브란스 교수·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치료제 개발과 환자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폐막 기조강연은 토마스 하르통 교수가 말아AI와 오가노이드가 그릴 신약개발의 다음 10년을 전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를 맞이한 ‘ODC26’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오가노이드 분야 전문 콘퍼런스로 오가노이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산업화·동향 및 비전을 매년 공유하고 있다. 국내 행사를 넘어 ASEAN 지역 콘퍼런스 등으로 범위를 넓히며, 과학 기술을 윤리적·문화적 시각과 결합하여 바이오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문화적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한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오가노이드가 연구실을 넘어 실제 신약개발과 치료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번 ODC26을 통해 한층 뚜렷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metro

사우디 수도 덮친 후티 공습… 석유시설 불길·항공편 차질

예멘 정부군, 후티반군 12명 사살
이란, 美에 전쟁 종식 전제조건 제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 친이란 세력인 후티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사우디 국영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연료탱크가 불길에 휩싸이고,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도 화염·연기가 솟구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18일 밤부터 19일 오전까지 수도 리야드 전역을 비롯한 주변 여러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7월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리야드에 발령된 최초의 경보다.

폭발음 신고는 곳곳에서 보고됐다. 당국은 위험 상황이 종료됐으며 경보를 해



16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대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소속 F-15 전투기 잔해 앞에 모여 있다. /AP·뉴시스

제했으나, 그 직후 킹칼리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둥이 목격됐다. 항공기 정보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는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다수의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운항 차질지수가 최고 수위인 5.0에 달했다고 했다.

또 AFP에 따르면 공항 인근에 자리한 아람코의 석유탱크에 화재가 발생했다. 통신은 소방대원들이 아람코 로고가 표시

된 탱크에 옮겨 붙은 불을 진화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후티의 아히야 사리 대변인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 영토에 두 차례 군사작전을 단행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그는 “첫 번째 작전은 리야드 내 민감시설을, 두 번째는 안부에 있는 아람코 시설을 겨냥했다”며 “예멘에 대한 사우디의 봉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우디의 군사시설을 조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공격 주체가 누군지 등 이번 피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티는 최근 예멘 서부 주요 거점인 모카함을 점령했다. 이어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 섬까지 장악했다. 또 사우디 안부의 아람코 석유 시설과 카미스 무사이트 공군기지에도 미

사일 및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이에 이슬람성지 메카와 사우디 제2도시 제다에 이어 리야드까지 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예멘 정부군은 북동부 마리브주에서 침투를 시도하던 후티반군 1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예멘 정부군은 19일 낸 성명에서 방어 진지를 뚫고 들어오려던 후티반군과 교전해 이 같은 전과를 냈다고 전했다.

사우디도 반격에 나섰다. 예멘 타이즈주·하지주 내 반군 진지, 통신시설 등에 공격을 가했는데, 후티를 상대로 중국제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쓴 정황도 드러났다.

후티는 지난 16일 예멘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의 F-15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후티와 사우디 간 무력분쟁 격화로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튀르키예의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사우디에 군사적 지원이 일부 필요할 수 있다”며 “파키스탄과 체결한 3자 방위협정

틀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우디가 미국-이란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교전 종식을 위한 제안들을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종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카타르 알자리라방송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조건에는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해상봉쇄 해제 등이 포함됐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카타르·파키스탄 등 중재국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예멘 간 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